2026년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포럼

통합돌봄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2026.10.29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김현희

평 생 친 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9. 7. 4. / (총 3매)	담당부서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3020
팀 장	임 강 섭		044-202-3691
담 당 자	권 민 정		044-202-3692 선도사업 / 기획·인프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단 · 지자체 · 복지부가 모여 학습하고 발전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협의체 개최(7.4, 전주)-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4일(목) 10시,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선도사업) 광주 서구,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 화성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평 생 친 구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 도 자 료

12월 17일(목) 행사시작(15: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12. 17. / (총 4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 장	정 영 훈	전화	044-202-3030
	담당자	이 우 정		044-202-303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 장	정 현 진	전화	033-736-2860
	센터장	유 애 정		033-736-2983
	담당자	이 기 주		033-736-2883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 2020년 제 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12.17) -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란?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정책**의 **종합적 변화**를 추진하는 전략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포럼)」**(이하 비전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번 비전포럼은 **12월 17일(목)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참여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com/user/nhicsns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정영훈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와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비전 및 과제

비전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

목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 중점 과제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 케어안심주택 • 집수리 사업 •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	• 방문건강 서비스 • 방문 의료 • 지역연계실 운영 •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 회복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 • 신규 재가서비스 • 재가 의료급여 신설	• 통합돌봄창구 (읍면동, 보건소 등) • 지역케어회의(시군구) • 통합정보플랫폼

로드맵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추진

2026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 2025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양성
-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정 전략 마련

2018 ~ 2022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
- 생활 SOC 투자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
- 법·제도 정비 : '(가칭)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관련 지침 정비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 8.

국정기획위원회

Ⅲ. 123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체계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국정목표 ❹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국정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통합돌봄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 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대상자로 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 64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등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정신질환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2026년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예산 914억원 , 통합돌봄 재정 확대 필요 돌봄 연계·통합을 위한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별 편차 해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열악한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대 필요

통합돌봄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노인의 78.1%가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망 자의 72.9%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고,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는 14.7%**에 불과한 실정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국회정책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병원퇴원환자중심으로-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216호)

발제: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
최권호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혜진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최재우 부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김현희 회장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참가신청>

주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지원: 보건복지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제고 모색

이상만 기자 | 입력 2025.12.23 09:37 | 댓글 0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남인순 의원실 국회토론회 성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현희, 이대목동병원)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실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주제 국회토론회 후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사진=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사업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최권호 교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가 발제하고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겸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최재우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이 토론을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현재 전환돌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퇴원연계사업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통합돌봄 제도 안에서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의료사회복지현장의 협회원들이 참여하여 병원퇴원환자 통합돌봄에 관한 현안등을 논의하고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김현희 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 적정인력안과 돌봄 중심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보편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수가화 하는 등 정책적인 방안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 VOL. 19

소셜워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뉴스레터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톡 채널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채널 | 블로그

뉴스레터 구독하기

칼럼

돌봄통합지원 현장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다

김현희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병원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돌봄의 시작이다."
병원 의료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하는 말이다.
고령 환자,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의료적 치료가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30.(금) 조간 2026. 1. 29.(목) 12:00 배포 2026. 1. 29.(목)

통합돌봄 정보, 한 곳에 담았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개설

- 이용안내부터 우리 지역 통합돌봄 현황, 교육자료까지 한눈에 제공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URL: www.mohw.go.kr/integratedcare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또한,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국민이 거주 지역의 담당 부서를 쉽게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해,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수사례 확산**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8.(목) 15:00 이후 배포 2026. 1. 8.(목)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 및 맞춤 지원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12. 20.(토)

지자체 통합돌봄 정책자문을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 발족

- 지역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전문가의 정책 이해 및 자문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직무대리 유주헌)은 **12월 20일(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지원할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방향, 사업지침** 등을 교육하여 이들이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와 운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을 이수한 **지역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이들이 향후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자문, 실행계획 컨설팅,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지역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지역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적인 동반자다**"라며,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통합돌봄 전문가 위촉장 수여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사무관	정동민 (044-202-303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1.(수) 간담회 시작(09:30) 이후 배포 2026. 2. 10.(화)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 복지부, 지역별 준비격차 완화 위해 기초단체 현장 밀착 지원 -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1.30 기준)로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기 위해 ❶**조례제정**, ❷**전담조직 설치**, ❸**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❹**사업 신청**, ❺**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하여 **총 5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4.(수) 행사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2. 4.(수)

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 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개 전문기관 지정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4일(수) 오후 2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법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14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30.(금) 간담회 시작 (14:00) 이후 배포 2026. 1. 30.(금)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

- 이스란 제1차관,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통합돌봄제도 시행 전 로드맵 마련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30일(금)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통합돌봄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돌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 수립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계획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밝힘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2월 말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수요와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통합돌봄 기본계획' 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 전부터 국민과 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도 높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5.(목) 브리핑 시작 (14:00) 이후 배포 2026. 3. 5.(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추진 로드맵 발표 -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 -
-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❶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3. 6.(금)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 3.6.(금)부터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
- KB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공간개선비용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 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9.(월) 교육 시작 (13:30) 이후 배포 2026. 3. 9.(월)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첫걸음'

-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체계 실무 교육 실시(3.9.~3.10.)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월)부터 3월 10일(화)**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2.(목) 조간 2026. 3. 11.(수) 12:00 배포 2026. 3. 11.(수)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4월부터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수)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23.(월)

복지부 장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점검

-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 개최(3.23.) -

- 사업 준비상황,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등 준비 현황 점검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3일(월) 오후 6시**,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복지부 내 보건·복지 관련 주요 부서가 참여하여 통합돌봄 본사업의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안 조율 등 담당('25.8.11. 1차 회의)

이번 회의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나흘 앞두고, **본사업 추진** 관련 **준비상황**,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3.26. 제정, '26.3.27. 시행)

정은경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며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580)
		담당자	사무관	김성겸 (044-202-358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조간 2026. 3. 26.(목) 12:00 배포 2026. 3. 26.(목)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 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 229개 시군구 서비스 가동 -

-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 높은 심한 장애인 신청 가능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3월 27일(금)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도	① 기반 조성				② 사업 운영		
	조례제정* (A)	전담조직 구성(B)	인력배치 (C)	기반조성 평균(%) ((A+B+C)/3)	신청·발굴 (D)	서비스 연계(F)	사업운영 평균(%) ((D+F)/2)
총계 229개	226 (98.7%)	229 (100%)	229 (100%)	99.6%	229 (100%)	229 (100%)	100

* 조례 미제정(예정일) : 경북 울진군(3.30일), 전북 순창군(4월), 강원도 인제군(8월)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였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통합돌봄 2주 만에 8905명 신청...643명 서비스연계 확정

등록 2026.04.14 12:00:00 | 수정 2026.04.14 15:28: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5.(수) 조간 / 2026. 4. 14.(화) 12:00 배포 2026. 4. 14.(화)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 하루 평균 809명 신청, 올해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 대비 약 4.6배 증가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하였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정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현황]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

본 사업 후 (3.27~4.10, 2주간)		시범사업 기간 (1.1~3.20, 3달간)	
총계	일 평균 (근무일 기준)	총계	일 평균 (근무일 기준)
8,905명	809명	9,049명	174명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2,853명, '26.3월)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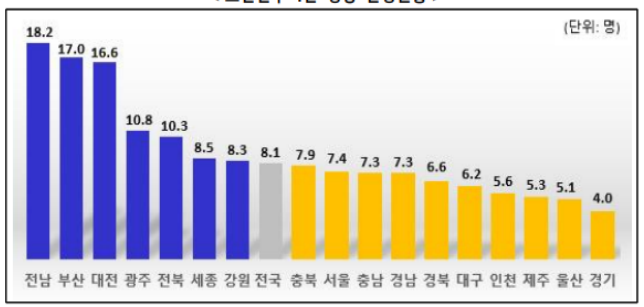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 읍면동은 1월 이후 신청·접수 경험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산출

[지역별 현황]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붙임1】)

[대상자별 현황]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같은 병원이 여러 지자체와 협약한 경우까지 합치면 총 협약 건수는 1,19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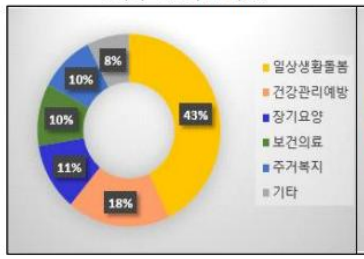
[서비스 연계 현황]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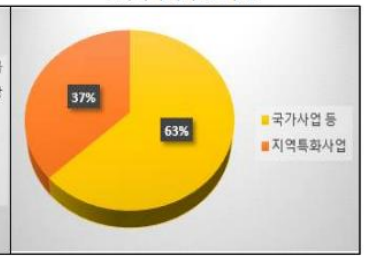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0,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10,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되었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서비스 분야별 비중>



<지역특화사업 비중>



[사업운영 관리 상황]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되었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 (4.10.(금).18시 기준)

□ 사업운영 총괄 현황

(단위: 명)

대상자		신청·접수	조사	서비스연계
계 (3.27일~)		8,905	5,919	3,250
	노인	8,799	5,903	3,250
	장애인(65세 미만)	106	16	-

* 조사, 서비스 연계의 경우 기존 시범사업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실적도 포함

□ 신청접수 100명 이상 시군구 (총 17개)

연번	시도(시군구 수)	시군구(신청자 수)
1	서울특별시(3)	중랑구(123명), 강북구(117명), 관악구(103명)
2	부산광역시(6)	중구(142명), 서구(117명), 동래구(123명), 북구(182명), 사하구(121명), 금정구(158명)
3	인천광역시(1)	부평구(119명)
4	광주광역시(1)	동구(125명)
5	대전광역시(2)	동구(138명), 중구(145명)
6	경기도(1)	부천시(101명)
7	강원특별자치도(1)	춘천시(105명)
8	전라남도(1)	순천시(260명)
9	경상남도(1)	창원시(129명)

□ 연계서비스 분석

(단위: 건)

전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기타
총 건수	10,816	1,127	1,968	1,230	4,632	1,055	804
비율	(100%)	(10.4%)	(18.2%)	(11.4%)	(42.8%)	(9.8%)	(7.4%)

내일신문

통합돌봄 통합판정 정체…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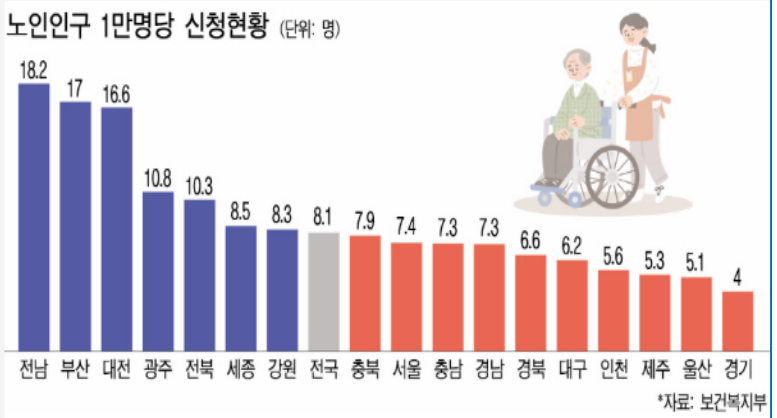
2026-04-15 13:00

서비스 제공 1~2달 걸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 시행된 지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643명이 서비스 연계됐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1~2달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셈이다.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제43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춘계심포지엄
및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여는 새로운 연대

일 시 2026년 05월 08일(금) 09:00 ~ 18:00
장 소 이대목동병원 MCC-B관 10층 대강당

09:00~09:20	등록 및 접수	
	1부	사회 : 박명신 학술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9:20~09:30	개회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장수미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장 (청주대학교)
09:30~10:30	기조 강연	돌봄과 복지국가 윤홍식 교수 (인하대학교)
10:30~11:00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총회
11:00~11:2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세션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배지영 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좌장 : 최지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1:25~12:30	패널 및 현장토론	김미성 팀장 (서울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김일호 실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채수진 교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30~14:00	점심식사	
	2부	사회 : 김경희 학술위원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14:10~14:40	주제발표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재편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14:40~15:10	주제발표 2	퇴원계획 제도화와 병원 기반 통합돌봄: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환경 최권호 교수 (경북대학교)
15:10~15:40	주제발표 3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 중심의 흩흩한 사례관리 남석인 교수 (연세대학교)
15:40~15:50	휴식	
		좌장 : 권자영 교수 (세명대학교)
15:50~17:00	라운드 테이블 토론	이유진 의료사회복지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민진 의료사회복지사 (미주홈병원) 황복순 의료사회복지사 (백재활요양병원) 최지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성경 사무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17:00~17:30	연구윤리 특강	AI 시대 연구윤리 최창용 윤리위원장 (가천대학교)
17:30~18:00	폐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학지사

의학신문

정책·행정 | 의원·병원 | 제약·유통 | 의료기기·IT | 약사·약국 | 식품·화장품·환경 | 해외 | 지면보기

실시간 의료기관 중사자 결핵 발생 위험 높다

의료단체

돌봄통합 시대...의료사회복지사 역할 재정립 본격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공동 학술행사 개최
퇴원환자 지역 연계~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확대 논의

김현기 기자 업데이트 2026.05.14 16:06 | 댓글 0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계기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병원 내 상담과 자원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조정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그 중심축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는 최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여는 새로운 연대'를 주제로 '제43차 춘계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ETC의약품

오늘의 주요뉴스

[제약산업] 다국적제약사 사회적 책 발

인터뷰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5대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3.1만명의 어르신이 이웃을 지킵니다



기존	개선
돌봄이 필요해도 발견이 늦고 지원이 이어지기 어려움	지역 어르신이 직접 이웃을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결

•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5가지 돌봄을 수행합니다

1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분류 및 서비스 욕구 확인, 필요 자원 연계

2 건강관리
건강 체크·복약 지원·말벗 활동 및 병원 동행

3 식사 지원
식재료 준비, 밑반찬·도시락 제조·배달

4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정리정돈 및 방역 등 위생관리 지원

5 위생 지원
이불·옷 세탁 및 안부 확인



어르신의 손길이 일자리가 되고, 이웃에게는 든든한 돌봄이 됩니다.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6. 4. 27. (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좌장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제 발표
- 발표 1.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 재정 실태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발표2. 2027년 돌봄 재정소요 추계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돌봄재정TF)

토론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선임차장
- 서한기 연합뉴스 보건복지 전문기자
-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
- 진민규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장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김 윤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국민동의 청원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청원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초고령사회, 든든한 내일!



예산 및 인프라 대폭 확충
- 돌봄 수요 증가 정확히 반영
- 안정적 재원 확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지역 중심 돌봄 강화
- 살던 곳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
-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세대를 위한 든든한 내일

동의 기간
2026.06.05(금) ~ 2026.07.05(일)
(30일간!)

5만 명 동의 시 **국회 회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지금 동의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동의

청원 참여하기

QR코드 스캔
또는
URL 바로가기
https://bit.ly/4e4oaVb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Joint Action for Expanding Care Finance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 방안 정책토론회

2026. 11. 10. (화) 9:30~12:00
국회도서관 소강당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좌장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 발표 —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
-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토 론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보건복지부 (예정)
- 기획예산처 (예정)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서미화 최고위원,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
- 국민의힘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
-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공동주관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Joint Action for Expanding Care Finance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2026년도 1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돌봄의 재구성, 연대와 공적 책임

2026. 6. 25.(목) 14:00~17:00

프레지던트 호텔 31F 슈벨트홀

등 록

13:40~14:00 참석자 등록 및 입장

개 회

14:00~14: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10~14:20 인사말씀

1부 발제

14:20~14:50 주제발표 1

돌봄 현장에서 본 공적 책임 구현의 과제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14:50~15:20 주제발표 2

사회연대경제가 바라보는 돌봄의 의미와 참여 방안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센터장

휴식

15:20~15:30 휴식 및 네트워킹

2부 지정토론

15:30~16:50 분야별 전문가 지정 토론

좌장 | 김영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

토론 | 윤붕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금창영 홍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현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위원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장

참가 신청 QR

행사 신청은 QR코드 스캔 혹은 본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문의 jxinjn@kcpass.or.kr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 2026년 6월 나눔인사이트



6월의 나눔인사이트

북토크

김진석 x 남기철 x 장숙랑

대한민국에도 돌봄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저자 김진석·남기철·장숙랑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

2026.06.19.FRI 오후 3시

사랑의열매회관 B1 대강당

사랑의열매

제12회 2026년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

[참석신청QR]



- **주 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의료사회복지 현장 변화와 과제
- **일 시** 2026년 7월 10일 (금) 12:30~17:00
-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윤덕병홀** (zoom 온라인 실시간 중계)
- **주 최**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공공진료센터 의료사회복지팀
- **평 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평점 2점
- **참석신청**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 후 신청 (참가비 무료)

Program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자
12:30~13:30	접수 및 등록	
13:30~13:50	개 회 사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축 사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
	축 사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영상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기념 촬영	
Session 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의료사회복지 현장 변화**	| 좌장 |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13:50~14:10	상급종합병원 현장 변화의 실제 : 성인재택의료를 중심으로	김현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14:10~14:30	상급종합병원 현장 변화의 실제 : 통합돌봄지원팀 사례를 중심으로	김후연, 정은주 서울아산병원 통합돌봄지원팀
14:30~14:50	재활의료기관 현장 변화의 실제 : 국립재활원 사례를 중심으로	오정은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
14:50~15:10	요양의료기관 현장 변화의 실제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의료팀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Ⅱ	**패널 토의**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의료사회복지 현장 과제 -	| 좌장 | 이상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15:30~17:00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기대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및 현장 과제	[발제] 김희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김계형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재철 진천군청 통합돌봄팀
		[패널토의] 안은숙 진천중앙재활병원 돌봄스테이션
		김은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김인태 전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팀
		유창근 파주송내파의원
17:00	폐 회	

※연자의 발제 제목은 연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SNUH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6. 7. 16.

보건복지부

I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총 **4.6만명** 신청

1인당 **3.3건** 서비스 연계

※ '26.6월 기준

어르신 체감 新 서비스 도입



퇴원환자 연계



노쇠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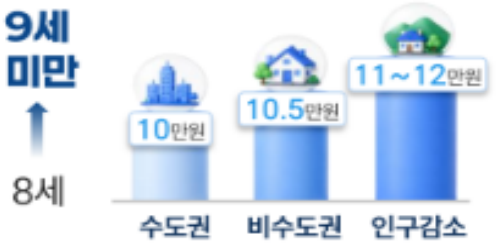


치매안심 재산관리



임시주거(중간집)

아동수당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



※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30)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

비전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7대 핵심 과제

1.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 역점
2. 국가책임 돌봄 — 역점
3. 지속가능한 연금 — 개혁
4. 청년 도약 복지 — 개혁
5. 5극·3특 지역의료 — 지방주도 성장
6.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 역점
7.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 국가정상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으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상

노인 → 노인 + 장애인 + 정신질환자

서비스

재가의료·일상돌봄 등 30종 → 노쇠예방·임종케어 등 생애 全주기 60종(~'30)

의료

- 방문진료 확대
  - ※ 재택의료센터 463개소('26.6) → 650개소('30)
- 방문재활 등 특화 의료서비스('26.下)
  - ※ 거점 재택의료센터 도입
- 의료급여 건강관리 강화
  - ※ 방문건강관리, 도시락 제공 등 → 저소득층 사회적 입원 방지

요양

-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도입('26.下)
- 재가 생애말기 및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
  - ※ (예) 가정형 호스피스, 간병, 정서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27)

돌봄

- 보건소 노쇠예방 건강관리
- 퇴원환자 집중지원
  - ※ 영양 + 가사 + 외출 동행 + 임시주거(중간집)
- 독거 어르신 돌봄



인프라

-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실태조사) → 취약지 공공인프라 기반 강화

성과관리

-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 운영('27)
-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제도 (병원퇴원환자중심)개요

통합돌봄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26.3월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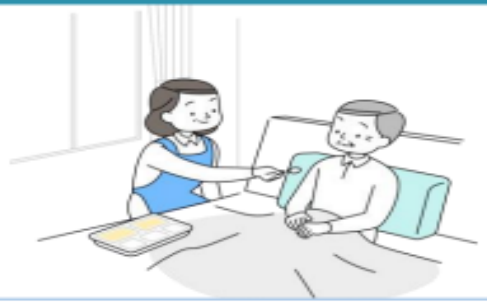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의료 · 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통합지원 전국적용**

목 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지원**을 필요로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노인, 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 시 대상자에 포함

지원종류



보건의료(방문진료, 간호, 복약지도, 호스피스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연계강화

* '26.3.27. 시행 예정

통합돌봄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지원 절차

신청	조사	계획	연계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조사**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 조사 실시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등)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재택의료기관 ☑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기관 등

추진배경 및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화 · 만성질환 및 1인 · 취약가구
(고령 노인 또는 장애인) **증가** 등으로
퇴원환자 재가 돌봄 및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추진 배경

필요서비스 지원 체계 필요



지자체 · 병원 협력으로 **지역 통합돌봄체계**
신속한 연결을 통한 자신이 살던 곳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체계 필요

법적근거

돌봄통합지원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

	퇴원 전			퇴원 후
	1 지자체-병원 협력	2 대상자 의뢰	2-1 (필요시) 지자체 조사	3 서비스지원 계획 수립 및 제공
주체	시군구-병원	병원 내 담당자 ((의료)사회복지사 등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내용	MOU 체결 등	선별평가표, 통합지원 신청서, 환자평가표 작성	시군구 자체조사	통합지원회의 거쳐 서비스 확정 › 제공

병원 담당자



- 시군구 전담조직으로 대상자 의뢰
  (환자평가표 등 관련 서식 활용)

시군구 전담조직



- 협력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의뢰를 위한 일체의 서류 접수
- 신속한 통합지원회의 상정

시군구 전담조직



- 병원 제공정보 등 활용
- 필요시 자체 조사를 거쳐 통합 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협력 병원 선정

보건복지부

병원과 지자체 간 퇴원환자 지원 협력체계 마련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 사업에 참여 희망* 하는 병원 중 선정

요양병원·책임의료기관 중 참여희망기관, 관외 종합병원 등 포함

* 예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환자지원팀을 갖춘 종합병원급 병원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관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



지자체와 협력 병원은 퇴원환자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역할 분담 및 협업

관련사항 MOU 체결 권고

* 시·도는 관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시 ·군 ·구간 일괄 협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일상생활기능 저하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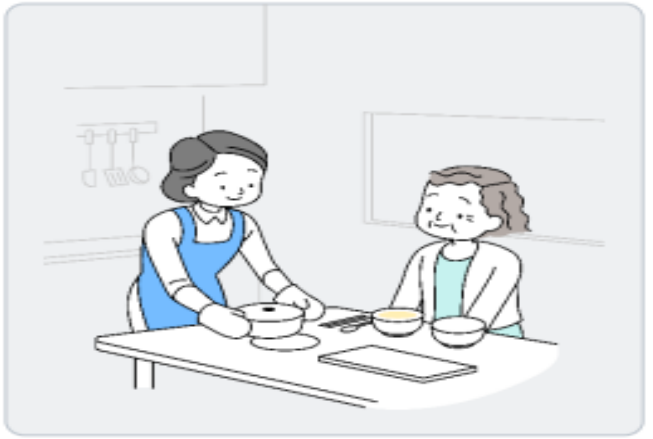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중
골절,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기능 저하 환자

중증만성 질환 환자



암, 심부전 등
중증만성질환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지자체장이 의료 · 돌봄 필요성,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5세 이상 노인(고령장애인 포함)

*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

퇴원환자 대상자 의뢰

보건복지부

협력병원

*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시군구는 신속한 자체조사 실시

병원 내 담당자는 시군구 전담조직으로 대상자 의뢰

- 대상자 동의 하에
  선별평가표,
  통합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환자평가표 작성 후

→ 시군구 전담조직에 공식 제출

* 연계시스템 정식 구축 전, 수기 제출 우선 활용
  이메일, 공문 또는 서류스캔본

시군구 전담조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 제공

지원대상 선정방법 의료·돌봄 필요도 고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1 선정 기준 설정 사전 협의

지자체 : 병원과 협약체결 시

예산 | 인력 | 지역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지원대상자기준을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설정

2 우선대상자 선별 현장 판단

병원내담당자 : 퇴원(예정)환자 대상

연령 | 장애 여부 | 돌봄 욕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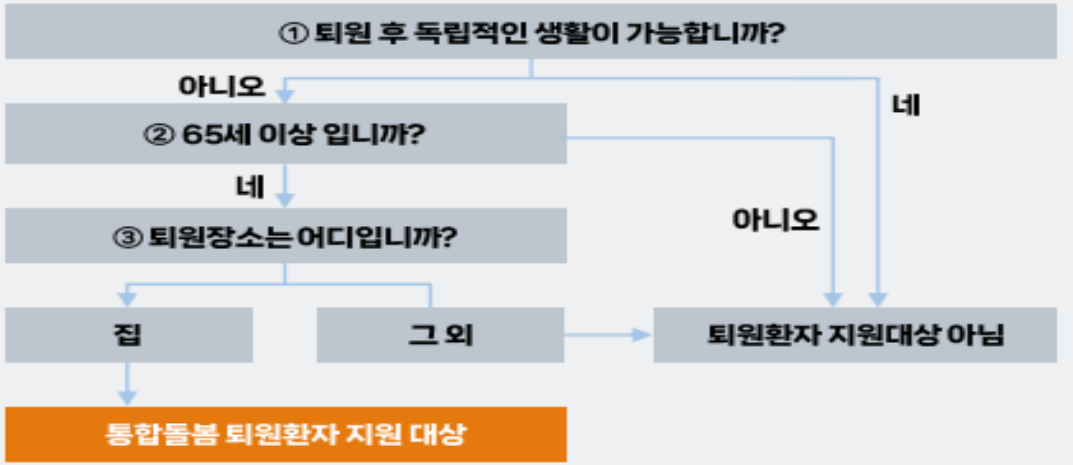
간단한 선별평가 실시

평가결과를토대로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선별 평가표

질문(5개 항목)	답변
①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 네 □아니오
② 65세 이상입니까?	□ 네 □아니오
③ 예상되는 퇴원장소는 어디입니까?	□ 집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등 지역사회 거주지원시설 포함) □ 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등) □ 기타
④ 혼자 사시거나, 퇴원 이후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네 □아니오
⑤ 의료급여 수급자입니까?	□ 네 □아니오
⑥ 퇴원 후에 긴급돌봄이 필요합니까?	□ 네 □아니오

선별 평가 해석방법



퇴원환자 지원 주요 서비스 예시

보건복지부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및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중심 제공

✔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 보건의료 31.2%, 일상생활지원 28.1%, 주거지원 9.8%

1 공통서비스

주거

- 문턱 제거·안전보조기구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퇴원 이후 재가 복귀 위한 주거 지원서비스 (지원주택, 중간집 등) 제공

자활센터·복지관프로그램

- 자활센터 통한 가사지원·사회참여, 복지관 연계 식사지원·체육프로그램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강화

긴급돌봄

-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공적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퇴원환자에 대해 돌봄 및 방문목욕 등 제공



일상생활돌봄 지역특화돌봄

- 지역의 가사·식사·이동 등 지자체 특화 서비스 지원

퇴원환자 지원 주요 서비스 예시

보건복지부

2 장기요양 인정자

보건의료 재택의료센터

다학제 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퇴원 이후 건강 관리

- 방문진료·간호 제공
- 지역 돌봄자원 연계

보건의료 방문간호

간호사

퇴원환자 대상 전문 간호서비스

- 감염·통증 관리
- 투약 지도·구강관리
- 보호자 교육 등

일상생활돌봄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식사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목욕 서비스 제공

3 일반 퇴원환자

보건의료 방문진료

-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가정)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일상생활돌봄 노인맞춤돌봄

- 퇴원 노인에게 중점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 구성·제공



국가 퇴원환자 사업과 지자체-퇴원환자 지원 사업 간 관계

기본원칙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건강보험 수가 혹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으로 포섭되지 않는 환자 및 의료기관 보완

국가퇴원환자지원사업은 **국가사업 수가기준**, 비참여 의료기관은 **지자체 연계수당 활용**

급성기 및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연계수당 청구 불가
- '수가제도'를 통한 참여가 원칙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운영 시

수가제도를 통해 연계
(요양병원퇴원환자 지원제도)

환자지원팀 미운영 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퇴원환자 발굴·평가·연계에 대한 연계수당 청구 가능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



- 표준화된 선별평가와 심층평가 도입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협력

* 연계 수당 지급 대상 아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돌봄이란?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연계하여, 누구나 익숙한 일상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

통합돌봄 이용안내 >

구분	[1단계] 도입기 (2026~2027)	[2단계] 안정기 (2028~2029)	[3단계] 고도화기 (2030~)
세부목표	- 통합돌봄 틀 마련, 서비스 연계 시작	- 대상자 · 서비스는 늘리고, 지역 간 격차는 줄이고	-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소득과 상관 없이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정신질환자로 확대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	- 기존 서비스 맞춤형 연계 - 신규 서비스 개발	- 서비스 성과분석 및 평가 - 신규서비스 제도화	- 노쇠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 완성
제도기반	운영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	운영체계 혁신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마련



2026. 3. 5.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의료·요양·돌봄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을 묶어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Q) 통합돌봄 체계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엇이 달라지나요?

- **1단계[도입기] (2026-2027년):**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현행 서비스를 우선 연계합니다.
- **2단계[안정기] (2028-2029년):** 서비스를 늘리고, 대상자도 확대합니다.
- **3단계[고도화기] (2030년~):** 노쇠예방부터 임종까지 지원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합니다.

[통합돌봄 시행 전]
'각각 찾아 신청'

분절적 서비스 / 직접 찾아서 신청



[통합돌봄 시행 후]
'한 번 상담하면 필요한 도움을 통합 연계'

개인의 상태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 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통합 연계



< 통합돌봄 신청·연계체계의 단계적 고도화 >

통합돌봄은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최근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막막한 경우**
- 가족이 돌보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노쇠·장애 등으로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❶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❷ 상담·조사·서류 제출

현재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식사기능, 신체기능, 질병 및 복약관리,
가족돌봄상황, 주거환경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에 따라 제출
*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조사



❸ 결과 확인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안내되면,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❹ 상황이 바뀌면 서비스 조정

몸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한 곳에 연락해 추가 상담 요청



통합돌봄 누리집
(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둘러보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단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상자 범위는 확대! 신청·연계 방식은 간소하게!
지원 서비스는 더 촘촘하게!



2026. 3. 5.

보건복지부

Q1) [단계별 대상자] 누가 먼저 지원을 받나요?

- **[1단계] 도입기(2026-2027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1], 심한 중증장애인[2]**

1) 노인: 입원·입소 경계선상 노인 등(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2) 심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우선 전국 시행 이후 65세 미만 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단계] 안정기(2028-2029년): 중증 정신질환자**

* 의료 필요도 높은 장애인으로 추가 확대 검토

- **[3단계] 고도화기(2030년~): 대상자 지속 추가**

Q2) 분야별 서비스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보건의료



방문진료·재가의료 등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확대

건강관리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연계·조정 강화,
방문건강·스마트 기반 강화

장기요양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강화

일상생활 돌봄



긴급돌봄·응급안전·주거지원 등
생활 기반 서비스 다양화

Q3) 대상자별 다양해지는 서비스들은 무엇인가요?

[1단계] 현행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신규서비스 개발** 추진

[2단계] **신규서비스**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적정성 평가** → 제도화 추진

[3단계] **노쇠예방~ 재가임종 전 주기에 대한**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한눈에 보는 대상자별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 1단계 중점 서비스(30개): 검정색 글자
- 추후 확대 서비스(30개): 주황색(노인)·노란색(65세 미만 장애인)·연두색(정신질환자) 글자

노인 서비스 28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방문진료 (진찰·처방·검사·교육)	보건소방문건강관리 (건강평가·관리, 보건소 자원연계)	방문간호 (감염투약·호흡관리 등 간호)	긴급돌봄지원 (긴급·일시적 돌봄공백 발생 시 단기간 기본돌봄 제공)
왕진버스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계층 대상 왕진버스 운영)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AI·스마트밴드 활용 건강미션 실행 관리)	방문요양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 (ICT 장비 활용, 화재·활동량 감지 등)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상담·정신건강프로그램)	노인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 등 위한 운동강습, 건강강좌)	방문목욕 (목욕차량·목욕지원)	중간집 국토부교통부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가정 내 안전장치 설치 등)
퇴원환자 지원 (병원의 환자평가 +시·군·구 서비스연계)	복약지도 (다제약물복용자 약물점검·상담·처방조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	노인맞춤돌봄 (안전 확인, 신체·정신건강 교육, 가사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상담·검진·사례관리)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노쇠 평가 후 신체·구강·영양·정서 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 (다학제팀 지속 방문 동해 진료·자원연계)	스마트홈 돌봄 (스마트홈 돌봄기술과 서비스를 결합)
치매전문관리서비스 (주치의가 케어플랜 수립, 비대면관리+방문진료)		통합재가 (방문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통합 제공)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환자 케어플랜 +주기적관리)		방문영양 (영양 관리, 식단 조정 등)	
통합재택간호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 통합 제공)		방문재활 (생활재활서비스)	
임종케어 (생애말기 재가의료, 가사· 장례 지원 등)		병원동행 (이동 지원, 진료과정 동행)	

한눈에 보는 대상자별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장애인 (65세 미만) 21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 치과) (건강 관리 및 전문적 장애 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영양·구강·육창·피부 건강 관리, 사회참여·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감지로 구조·구급 지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 지원)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주거 편의·집수리 지원)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진료센터 지정)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체력 증진, 신체기능회복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체수발·가사·일상생활·건강 지원)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권역재활병원 동해 재활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체력점검 및 체육활동 연계 상담)	이동지원(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주차표지, 장애인콜택시, 리프트 특장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춘 기관 지정)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관 연계 및 맞춤형 사례관리)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 등 보조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교육, 청소년 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
		언어발달지원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수어통역 (농아인 수어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

정신질환자 11개

병원기반 사례관리 (교육·상담 등 다학제관리팀의 퇴원환자 통합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 (정신건강평가·관리, 지역자원 연계)	주간재활시설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 지원)
낮병동 프로그램 (입원이 아닌 낮병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 치료·재활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 (중독문제 평가·관리, 지역자원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임대주택 및 생활관리 지원)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및 외부지원 연계)	동료지원서비스 (동료지원인 상담 및 활동 지원)
	트라우마센터 사례관리 (재난경험자 사례관리, 고위험군 대상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동료지원쉼터 (거주공간 및 동료 상담, 정신건강위기 시 긴급지원 및 돌봄)
	심리상담바우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참여병원 지원안내

지자체는 퇴원환자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참여병원에 소정의 연계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 협력병원이 환자평가표 등 자지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지자체에 의뢰한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지급범위

- 지자체 연계수당의 범위는 5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국가 퇴원환자 연계사업 참여 중인 병원은 수당 지급 대상 아님

협력체계 마련

- 참여병원선정: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중 지자체가 선정

*예시: 요양병원, 책임의료기관, 관외 종합병원 등

- 협약 체결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지자체와 병원 간 직접 협약(MOU)을 체결

*시·도, 시·군·구, 병원 간 일괄협약 가능

- 신청 및 상담 문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협약병원 리스트 및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은 통합돌봄 누리집 등 참고

통합돌봄 제도 안내 및 문의처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목적 및 근거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 요양 · 돌봄
-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시행)

절 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수행

1단계 신청 → 2단계 조사 · 종합판정 →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5단계 모니터링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및 접수

해당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 지사

병원에서 집까지 끊김 없는 돌봄의 시작

퇴원환자 통합돌봄 안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통합돌봄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 시 주소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 · 요양 ·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 주요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골절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기능이 어려워진** 환자



암, 심부전 등으로 퇴원 이후 **지속적인 의료 · 돌봄 연계가 필요한 환자**



의료 · 돌봄 필요성과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위 요건은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예시이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01 병원 - 대상자 선별 및 의뢰

- 병원 내 담당자(사회복지사 등)가 환자 동의 하에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를 진행합니다.
- 통합지원 신청서 · 동의서 ·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 전담조직으로 의뢰합니다.

병원에서 평가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와 동의서만 제출하고 추가 조사는 시 · 군 · 구 전담조직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지자체 조사 및 계획수립

- 의뢰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 시 시·군·구 자체조사를 실시합니다.
-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03 서비스 제공

- 확정된 계획을 공식 안내하고, 신속하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개인의 건강상태, 소득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토대로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및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제공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공통서비스	
주거지원	문턱제거, 안전보조 기구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주택 · 중간집 등 주거지원
긴급돌봄	기존 공적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돌봄 및 방문목욕 등 제공
지역특화돌봄	가사 · 식사 · 이동 등 지자체별 특화서비스 지원

장기요양 인정자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세면 · 식사보조), 일상생활(청소 · 세탁 · 식사준비), 목욕 등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감염 · 통증관리, 투약지도, 구강관리, 보호자 교육 등 전문 간호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다학제팀의 방문진료·간호, 지역돌봄 자원 연계 등 건강관리

일반 퇴원환자	
방문진료	거동불편 재가환자 대상 의사(한의사) 직접 방문진료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1개월 범위 내 영양 + 가사 + 이동지원 집중 패키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통합돌봄으로, 내 집에서 건강하게!

주요돌봄서비스

보건의료



1. 방문진료
2. 재택의료센터
3.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상생활



1. 식사 지원
2. 가사 지원
3. 차량 지원

요 양



1.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2. 복지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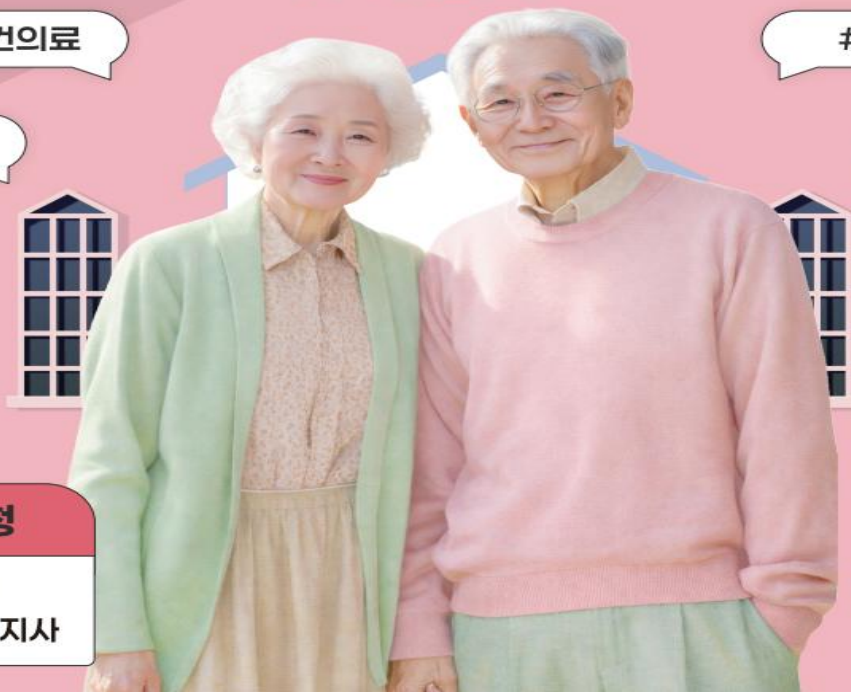
주 거



1. 안전홈케어
2. 케어안심주택

내 집에서 편안하게!
통합돌봄이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듭니다.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상담·신청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

2026 통합돌봄 지원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된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양천구 내에서 발굴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돌봄통합지원법)('24.3월)

통합돌봄이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추진배경

-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 진입으로 돌봄부담 본격화



요양(병)원 등
장기 입소한 노인의60%
집에서 거주 가능한 상태

- 돌봄 필요 장애인,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지원자, 퇴원환자 등
  -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
- **사업기간** 2026년 3월부터
  * '25.11월~'26.2월까지는 양천구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

- **진행절차**

1 신청 → 2 조사 → 3 판정 → 4 계획수립 → 5 조정승인 → 6 서비스제공 → 7 모니터링

- **지원분야** 4개 분야 40개 서비스

보건의료건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 재가의료급여사업, 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 찾아가는 한방 의료 돌봄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다제약물관리사업, 만성질환건강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심리상담바우처 사업, 건강백세 운동교실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운동 지도사업, 양천형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요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생활지원	돌봄SOS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CT기반 인공지능 스피커돌봄서비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AI안부확인 서비스,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

2026 통합돌봄 지원사업

통합돌봄, 왜 필요한가요?

돌봄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살기를 희망할 경우, 가정 내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양천구에서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사업 시작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합돌봄은 특히 보건, 의료, 건강 분야 등 어르신과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시범사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등이 있어요.

이를 위해 양천구 내 다양한 직종, 기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요양기관, 복지기관, 병원, (한)의사회, 약사회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첫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의뢰해요.
둘째,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해서 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양천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 바로가기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비스 메뉴판

대분류	중분류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사업구분
[1] 보건의료	방문진료	1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진이 가정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사례 관리 제공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의료기관	전국
		2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	의료진이 방문진료 제공 또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지원	건강취약계층	서남병원	지역특화
		3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의료진이 가정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거동 불편 대상자	의료기관	전국
		4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대상자에 한함	거동 불편 대상자	양천구청	지역특화
		5	건강한방 웃음한방 양천 통합돌봄 한방 주치의 사업	한의사가 가정방문하여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방문진료비·첩약비 지원)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지역특화
	방문간호	6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다학제팀(간호사,운동사, 영양사)이 가정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노인	양천구 보건소	전국
		7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	양천구 보건소	전국
	방문재활	8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장애인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가정 내 방문재활 등)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	양천구 보건소	전국
		9	양천형 방문운동 지도사업	운동지도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운동 지도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기타	10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사업	협약병원에서 퇴원환자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	노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11	재가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동일상병 31일 이상 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양천구청	전국

대분류	중분류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사업구분
[2] 건강관리예방	방문 복약관리	12	다제약물관리사업	약사·건강보험공단직원이 가정방문 또는 대상자가 약국 내방하여 약물중복 및 부작용 등 점검	건강보험가입자 중 상시 복용 약 10개 이상인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13	양천형 약물안전케어서비스	약사가 가정방문하여 약물점검 및 복약지도	의료취약계층 ※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 제외	양천구청	지역특화
	건강관리	14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오늘건강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 기기 활용한 건강관리 제공	노인 (디지털기기 활용가능자)	양천구 보건소	전국
		15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알림서비스, 맞춤형 정보제공 등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16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동 강습 및 치매·낙상 예방 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전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1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문가가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상담 제공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치매 전문관리	18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환자·가족, 양천구민	양천구 보건소	전국
	정신 건강관리	1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지원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정신질환자·가족, 양천구민	양천구 보건소	전국
		2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양천구민 및 재난경험자	양천구 보건소	전국
		2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화기반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심리상담 필요 소견서 또는 의뢰서 받은 자	양천구 보건소	전국
[3] 요양	방문요양	22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인정자에게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제공	장기요양 등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복지용구	23	복지용구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필요 품목 구입 또는 대여 지원	장기요양 등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기타	24	장기요양통합 재가서비스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중 장기요양 복합급여 희망자에게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장기요양 등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	전국

대분류	중분류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사업구분
[4] 일상생활 돌봄	일상생활 지원	25	돌봄SOS 사업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적 돌봄 제공(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단기시설)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이동지원	26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제공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식사지원	27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일상생활 지원	28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제공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양천구청	전국
		29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제공	장애인	양천구청	전국
		3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안전점사가사 등 지원	노인	양천구청	전국
		31	양천형 바로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단기간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스마트 돌봄	32	AI안부확인 서비스	AI 스마트 기술 활용하여 정기적(주1회) 안부확인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33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전력·모바일 사용량을 감지하여 위험신호 파악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34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IOT 기기를 활용한 안전확인 및 생활유형 분석 후 맞춤형 돌봄 제공	노인	양천구청	전국
		35	ICT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돌봄 제공	노인	양천구 보건소	전국
	기타	36	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건강음료 배달원이 주3회 방문 및 전달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기타	37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기타	38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전국

대분류	중분류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사업구분
[5] 주거 복지	주거공간 개선	39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거환경 마련 지원	노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40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도배, 장판, 단열 등 지원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41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해누리 복지관	지역특화
		42	돌봄SOS 사업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및 방역 세탁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43	똑똑양천 생활수리 출동서비스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수리업체가 가정 방문하여 소규모 간편 보수 서비스 지원	노인,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주거지 지원	4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제공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임차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일정기간 무이자로 지원	장애인	양천구청	지역특화

퇴원환자 통합돌봄제도의 향후과제

통합돌봄체계와 실질적 연계 - 병원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확보

병원과 지역사회 간 단절문제 해결
•퇴원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통합돌봄과 자동 연계
•지역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와 연결
•병원–지역 간 공동 사례관리 운영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 퇴원 이후를 책임지는 지역 기반 구축

퇴원이 가능해도 지역 자원이 부족하면 돌봄문제 발생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확대
•단기 회복기 시설 및 중간시설 확충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 등) 강화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 - 퇴원 직후 공백 최소화

퇴원 직후가 재입원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
- 퇴원 후 30일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입원 위험군 집중 개입

수가 및 재정체계 개선- 의료서비스질평가 등 보상체계 전환

현행 보상체계는 퇴원지원 활동을 충분한 반영이 어려움
- 퇴원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수가 신설
- 재입원 감소 등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 지역연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및 역할 강화 – 사람중심의 전문성 강화

퇴원지원은 전문적인 조정 기능이 핵심

- **(의료)사회복지사의 퇴원조정자 역할 제도화**
- 다학제 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운영 강화
- 전문 교육 및 수련체계 구축

정보연계 및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병원 –지역사회 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 EMR과 지역 돌봄 시스템 연계
- 퇴원환자 추적관리 및 성과 데이터 축적

대상자 중심 서비스 전환- 제도 중심 접근이 아닌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

- 환자·가족 참여형 퇴원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건강·돌봄·주거 통합)
- 취약계층 집중 지원

평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체계-성과 기반 정책 운영

- 재입원율, 지역정착율 등 성과지표 개발
- 중앙–지방정부–민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질 관리 강화

참고문헌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025)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병원퇴원환자를 중심으로 -
- 보건복지부 (2026)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 보건복지부,보건복지인재원(2022-202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실천사례집
- 보건복지부(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안내(안)-노인편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26)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026) 제43차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 보건복지부(2026) 상반기 업무보고서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2026.7.16.보도자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mail : agreokim@naver.com